

못다 핀 꽃



— 유치원에서 발생한 사고, 수사 중이라도 유치원의 반론권은 필요

올해 초 인천 송도 소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각지의 보육기관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 사례가 연달아 보도됐다. 미약한 아동에 대한 도를 넘는 폭행 수위에 부모들은 아연실색했고,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기관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이 확산됐다. 필자 역시 대학 입시보다 더 치열하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두 딸이 동시에 입소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연락을 받고도 수일을 고민했을 정도였다.

서울의 한 유치원인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신청인 유치원의 원아인 5살 아이가 유치원에서 낮잠을 자다가 숨이 멎은 상태로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유치원의 응급처치가 미흡하여 수개월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있다가 결국 사망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이었다. 특히, 사전에 부모로부터 아이가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경기(驚氣)' 병력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주의 기울이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경기 병력만 고지 받았을 뿐 구체적인 증상은 사고 이후에서야 들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 유치원은 사고 당일 아이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고, 응급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고 당일의 CCTV 장면을 분(分) 단위로 캡처하여 제출했다. 사진 속에는 아이가 유치원 차량에서 내려 교사의 손을 잡고 등원하는 모습, 유치원 계단을 오르는 모습, 교실에서 교사 및 친구들과 놀이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고 담임교사에게 안긴 채 이동하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모습들이 너무도 생생하여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했다.

피로를 호소해 교실 한쪽에서 쉬게 했던 아이가 얼마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자 신청인 유치원도 적잖이 다급했던 것 같다. 담임교사는 아이를 둘러업고 원장실로 뛰어 내려갔고, 원장은 곧바로 119에 신

고했으며, 의무병 출신의 운전기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아이의 상태가 위중해 구급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급히 인근병원으로 데리고 갔지만 의사는 하필 점심식사 중이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10~11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신청인 유치원에게도, 아이에게도 가혹한 시간이었다.

아이가 유치원 입학 당시 제출한 생활조사표에는 '경기를 앓은 적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아이의 경기 증상이 수면 중 호흡이 서서히 멈추는 것이며, 피곤해하거나 졸려하는 것이 전조증상이라는 등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학부모 상담 일지에도 마찬가지였다. 신청인 유치원로서는 오히려 '아이가 피곤해하면 잠깐 재워도 된다'는 학부모 의견에 따랐을 뿐인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져 억울할 법도 했다.

조정사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피신청인 측은 신청인 유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이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난색을 표했으나, 보도에 신청인 측 반론이 미흡하게 반영된 점을 인정했다. 반론보도에는 신청인 유치원이 사고 이전에 아이의 경기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고, 아이를 발견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이가 발견됐을 당시 '숨이 멎은 상태였는지'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관한 사항이라는 중재부의 의견에 따라 반론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건은 원만히 종결됐지만, 꽃을 피우기도 전에 저버린 아이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사고 당일 아침, 담임교사에게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지만 끝내 엄마 얼굴은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했던 아이. 아이가 힘들어할 때 곁을 지켜주지 못한 부모의 심정은 또 오죽할까.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 딸들을 꼬옥 안아줘야겠다.

